



인천환경공단, '에코비전 2023 워크숍' 개최

3일간 전 직원 화합의 장 마련
환경정책·챗GPT 특강 및 토론
브이로그 공모전, 댓글 릴레이

인천환경공단은 24일 문학경기장 그랜드오스티움에서 'ECO VISION 2023'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창립 16년을 맞아 '최고의 기술, 과감한 도전, 확실한 성과'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인천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인천 환경을 미래를 6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련했다.

특히 24시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 특성으로 인해 워크숍은 3일간 나눠서 진행된다.

1일에는 환경부 서해염 수자원관리과장의 환경정책 특강과 초록소프트 김명락 대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ECO VISION 2023' 워크숍 개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재윤 기자

표의 빅데이터 활용이란 특강부터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한 공단 방향에 대한 직원토의, 빅데이터 기반 시민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플랫폼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차 워크숍장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준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 표현과 격려가 있을 예정이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 운서역 신청사로 이전



영종관리과 신청사 조감도. /인천경제청

5월 30일부터 정상 업무 개시 민원인 편리·행정 서비스 앞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운서역 공영주차장(5층) 신청사로 영종관리과 사무실을 이전, 오는 5월 30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이전하게 되는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실 규모는 396㎡로 이전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인천경제청 본청인 G타워가 아닌 영종하늘문화센터에 위치한 영종관리과는 그동안 영종국제도시의 부동산, 환경, 건축, 공원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현재 사무실이 공항신도시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컸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전을 했다는 것.

인천경제청은 영종관리과 이전으로 비게 된 하늘문화센터 문화복지동을 리모델링해 어학강좌, 취미생활, 인문학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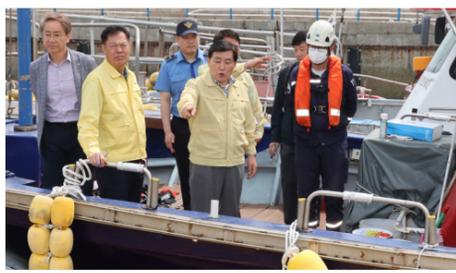
문경복 응진군수, 낚싯배 안전 집중점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의 일환

인천시 응진군은 24일 재난 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영흥면 진두선착장에서 낚싯배 13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를 높이고자 나섰다.

특히,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 조치하는 예



응진군은 재난 예방과 군민안전을 위해 낚싯배 13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응진군

방의 활동은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점검에는 문경복 군수가 직접 점

검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 수산과, 인천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영흥수협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평소 재난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 불법 노점 철거

미완료 3개소,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인천 미추홀구는 24일 연남로 35 롯데백화점 인근 약 100m 구간의 보도에 십수 년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불법 노점에 대해 행정대집행(철거)을 실시했다.

구는 그간 지속적인 불법 노점 철거를

희망하는 민원 요구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6개소의 불법 노점 중 3개소를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정비가 미완료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구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노점이 위치했던 장소에 화단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3개의 노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행정조치 수단을 동원해 도로 통행 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인천시, '어린이 농부교실' 운영...6월부터 교육생 모집

'작지만 강한, 미래를 품은 종자' 교육 센터 홈페이지, 단체·개인신청 가능

인천광역시시는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이 농부 교실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학급, 개인별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특히 농업홍보관에서 전시 중인 전통 농기구, 벼의 일생, 벼 생체 표본 등과 여러 가지 종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학교는 공문을 접수하거나, 단체신청

의 경우는 매주 월, 화, 수요일과 개인신청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 중심의 올바른 식습관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어린이 농부교실'에 참여중인 어린이들의 모습.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베트남서 인천관광 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현지 여행사·미디어 등 130여 명 참가
인천의 이벤트와 새로운 콘텐츠 홍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관광 로드쇼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인천관광 설명회로 베트남의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항공사 등 130여 명이 모인 자리라고 밝혔다.

베트남과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가 485만 명을 기록한 서로에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산층이 많아져 올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베트남의 대표 국영 여행사인 비엠티라벨(Vietravel)을 방문하여 인천 특화상품 개발 및 공동



인천시-인천관광공사, 우수 파트너 위촉 모습(왼쪽 사진)과 베트남 언론사 기자회견 전경.

/인천관광공사

프로모션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축제, 드라마촬영지, 유니크 메뉴, 의료·뷰티시설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현지 주류 여행사, 언론사, 항공사 등 총 57개사 130여 명이 참여한 인천관광 설명회는 축제, 드라마촬영지, 먹거리 등 인천의 주요 이벤트와 새로운 콘텐츠

를 소개했다. 또한, 6월 15일에 개최되는 '1883 인천 맥강(맥주-닭강정) 파티'와 8월에 개최되는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과 9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K-Pop 행사인 'INK콘서트' 등도 홍보했다.

로드쇼 단장으로 행사에 참여한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인천에 대한 관

심이 많다"며 "앞으로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베트남의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5월 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에서는 국내외 여행업계 및 현지 미디어 등 총 112개사 230여 명이 참가, 여행업계 간 34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최승연 기자 wheelibee@naver.com

인천 동구, 빈집 정비로 '마을공간' 조성 소매 걷어

인천지역 최초로 무허가 철거 진행

인천 동구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빈집을 정비,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간 조성에 나섰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비를 지원 받아 인천지역 최초로 무허가 빈집에 대한 철거도 진행한다. 무허가 빈집 철거는 올해 2월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이 건의, 인천시가 수용함에 따라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무허가 빈집 정비에 대한 길이 열려 인천시 전체 시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올해 5억 1500만 원(시비 2억 5750만 원, 구비 2억 5750만 원)을 투입,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위험 빈집 14호(무허가 13호 포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한 정원 및 텃터, 주차장, 운동시설 등 마을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말까지 2000만 원(시비 50%, 구비 50%)을 투입, 금곡동 48-24

번지 위험 빈집을 철거한 뒤 6월 중 조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4~3등급의 위험 무허가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 마을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나 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철거가 필요하다"며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에는 지난달 말 현재 정비구역을 제외한 빈집 133호가 있다. 이중 55.6%인 74호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동안 무허가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조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 대상에서 제외돼 철거 및 안전조치가 시급함에도 시비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전체 빈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전액 구비만을 활용, 안전펜스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재민 기자 cjm9907@naver.com

계양구, 라오스 카이손폼비한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의료, 체육, 경제 등 교류 협력 기대
선천성 심장병 아동 치료사업 추진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23일 라오스 사바나켓주 카이손폼비한시를 방문해 두 도시 간 의료, 체육,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향서 체결은 두 도시가 상호 협력을 시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과 프라송신 카이손폼비한 시장은 이번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계양구에 소재한 종합병원인 세종병원과 연계해 선천성 심장병 아동 치료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계양구는 23일 라오스 사바나켓주 카이손폼비한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했다.

/계양구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향후 자매결연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계양구와 카이손폼비한시가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첫 시작이다"라며 "향후 두 도시가 적극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 사바나켓주는 라오스 중남

부에 위치하며 라오스의 사반-세노 경제 구역을 중심으로 현재 수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라오스의 경제 중심지이며 수도인 비엔티안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또한, 카이손폼비한시는 사바나켓주의 주도이며 주의 유일한 시급 도시로 경제, 무역, 운송 서비스 등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는 약 13만 명이며 국제공항, 주립병원, 대학 등이 밀집해 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

김석우 신임 이사장, 취임 축하 화분 기부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김석우 신임 이사장의 취임 축하 화분 20여 개를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부한 화분은 아름다운 가게 인천논현점에서 저렴하게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취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일상 속 크고 작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 행정으로 온정이 넘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cgy6148@naver.com